

## 제주출신 기업가, 채몽인의 생애와 경제사상

An Approach to the Life and Economic Thoughts of Mong-In Chae,  
An Enterpriser from Jeju Island

고 승 희\* · 고 봉 현\*\*

### <목 차>

- |                       |                   |
|-----------------------|-------------------|
| I. 프롤로그               | IV. 채몽인의 경제사상과 특성 |
| II. 채몽인의 생애와 기업활동     | V. 에필로그           |
| III. 채몽인의 창업이념과 기업가정신 | <참고문헌>            |

###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제주도 출신 기업가로서 한국경제의 어려웠던 시기에 사업을 일으키고 성장의 기틀을 다져놓은 채몽인(蔡夢印)의 생애와 경제사상에 초점을 두어 이루어진 논문이다. 채몽인은 개척자적인 자수성가형 기업가였다. 그는 1954년 6월 9일 애인경천의 기치를 내걸고 비누 제조업체인 애경유지공업(주)을 창업하여 국민들에게 생활용품을 제공하는 한편, 1970년 삼경화성(주)을 창업하여 화학공업 분야의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했음은 물론, 한국의 산업발전에 도 크게 기여한 기업가였다.

채몽인의 생애와 경영사상에 대한 접근은 5개의 시대구분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제1기(1917-1938)는 그의 출생 이후 어려운 가정환경을 극복하면서 학업에 정진하던 초년의 성장과정에 대한 기간이다. 제2기(1939-1945)는 그가 학업을 마치고 취업하여 사회적 경험을 쌓고 기업가적 소양을 다져가던 시기이다. 제3기(1945-1953)는 광복 이후 무업에 투신하여 상업

\* 단국대학교 경영학부 명예교수

\*\* 제주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자본을 축적하던 시기이다. 제4기(1954-1961)는 애경을 창업하여 사업기반을 구축하던 시기이다. 제5기(1962-1970)는 한국의 경제개발 초기에 해당하는 시기로서 애경의 기업집단화가 이루어지던 성장기에 해당된다.

채몽인의 경제사상은 그의 성장과정에서 터득한 경험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현장중심의 기업 활동을 통하여 이루어진 경영철학이다. 제주도 대정현의 현감을 지냈던 그의 부친의 훈육으로 소년기에 익힌 근(勤)·검(儉)·성(誠)·정(正)·온(溫)·애(愛)·경(敬)·화(和)의 유교적 덕목은 그의 생활철학을 형성하는 근원이다.

그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고 성실·공정한 자세로 고객을 우선시하였다. 그는 「공선사후」의 공익사상으로 국가사회의 발전과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을 만들었다. 이러한 국익사상을 기초로 하는 그의 기업 활동과 경영철학 속에서 찾아 볼 수 있는 근검절약주의 정신, 성실공정의 정도주의 정신, 창조주의 정신, 기술개발주의 정신, 그리고 인화(人和)주의정신은 채몽인의 기업가정신을 형성하는 줄기가 되어있다.

여기에 채몽인의 경제사상적 특색이 있음을 보게 된다. 그의 기업가정신에 바탕을 둔 기업 풍토는 애경그룹 60년사의 초석을 다지는 지표가 되었으며, 그의 경제사상을 잉태시키는 원천으로 작용하였다. 그의 경제사상은 ①인적자본투자관, ②탈빈 치부의 국익사상, ③정도주의 사상(성장지향의 합리적 기업관), ④창조적 기술혁신사상, ⑤공생공영주의사상(기업의 사회적 책임관)의 5가지로 요약된다.

## I. 프롤로그

하나의 기업이 탄생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업을 창업한 자의 가치관과 경제사상이 모태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창업자의 경영철학과 비전의 정립을 기초로 하여 경영전략의 수립과 실천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가의 경제사상과 경영비전의 확립은 기업이 생존하고 발전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기업환경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려는 기업풍토의 조성은 기업가의 경제사상 여부에 따라 형성된다. 즉, 창업자의 기업가정신은 기업구성원들의 일체감과 애사심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촉매제가 되며, 종업원의 긍지와 업무몰입을 가져오게 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기업을 창업한 자에 대한 접근은 그 기업을 바르게 인식하고 경영활동의 방향성을 이해할 수 있게 해 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 출신 기업가의 한 사람으로서 1950년대의 어려웠던 시기에 생활용품 기업을 일으키고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초를 다져

놓은 채몽인(蔡夢印)의 경제사상과 기업가정신에 접근함으로써, 창업자시대의 공유가치를 조명하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루어질 채몽인의 경제사상은 그의 기업 활동을 통하여 구현된 기업가정신의 초석을 이루는 것이다. 애경유지공업(주)의 창업자인 채몽인은 창조적 의지와 순발력 있는 기업 활동을 통하여 이익을 창출하고 그것을 재투자함으로써,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업기반을 구축했음은 물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한 기업가정신의 소유자이다. 본 연구에서는 채몽인의 기업 활동에서 표출된 기업가정신을 조명하고 애경유지공업(주) 창업초기의 기업문화를 추적하고 그의 경제사상적 특성을 정리하려고 한다. 특히 본 연구는 한일정상학회의 주관으로 열리는 제주지역에서의 국제학술발표회를 통하여 이루어진 대표적 제주출신 기업가의 조명이라는 점에서 깊은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II. 채몽인의 생애와 기업활동

채몽인은 일본강점기에 태어나 어려운 생활환경을 극복하면서 자본을 축적하고 애경유지공업(주)을 창업한 자수성가형 기업가이다. 그가 창업한 애경유지공업(주)은 애경그룹의 모태가 되는 회사였다. 오늘날의 애경그룹은 채몽인의 창업정신에 바탕을 두어 성장하고 발전하였으며, 그의 기업가정신을 통하여 형성된 애경문화의 원류를 이루고 있으며 모든 애경인의 공유가치로서 구현되어 있는 기업집단이다.

그러므로 창업자인 채몽인의 사업입지와 창업배경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그의 생애와 기업가활동을 일별할 필요가 있다. 애경유지공업(주)의 창업자인 채몽인의 생애와 기업가활동은 그가 출생한 1917년부터 타계한 1970년까지의 54년간을 5개의 시대별로 구분함으로써, 그의 기업가정신과 창업이념의 형성과 실천과정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진다. 제1기(1917-1938)는 그의 출생 이후 어려운 가정환경을 극복하면서 학업에 정진하던 초년의 성장과정에 대한 기간이다. 제2기(1939-1945)는 그가 학업을 마치고 취업하여 사회적 경험을 쌓고 기업가적 소양을 다져가던 시기이다. 제3기(1945-1953)는 광복을 맞은 조국의 하늘 아래서 그 동안의 경영수업을 토대로 하여 무역업에 투신함으로써, 상업자본을 축적하던 중요한 시기이다. 제4기(1954-1961)는 애경유지공업(주)을 창업하여 제조업에 진출함으로써, 축적된 상업자본을 산업자본화하여 사업기반을 구축하던 시기를 말한다. 제5기(1962-1970)는 한국의 경제개발 초기에 해당하는 시기로서 애경유지공업(주)의 성장기이다. 이를 정리하면, <그림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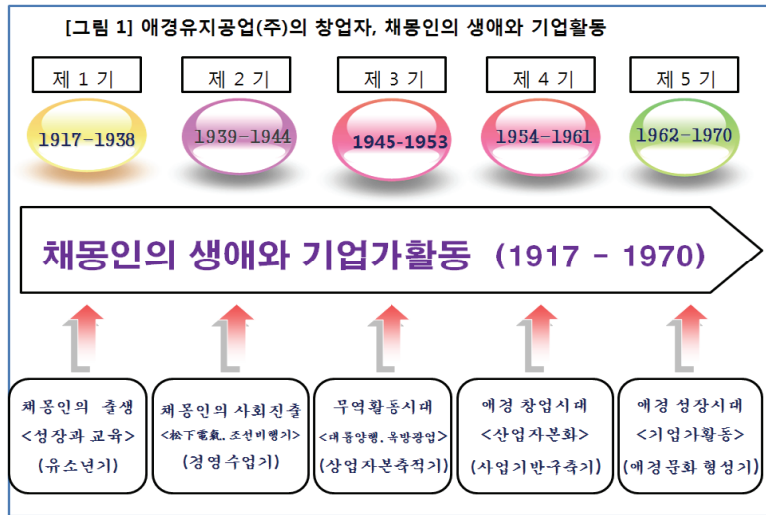
## 1. 제1기(1917-1938) : 출생과 성장기

채몽인은 1917년(丁巳年) 10월 5일 제주도 대정읍 대정리에서 초은(樵隱) 채구석(蔡龜錫)공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본관은 평강(平康)이요, 시조는 채송년(蔡松年)공이다. 그의 부친은 그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 제주판관을 지낸 바 있고, 대정현감(郡守)을 역임하였다. 제주판관에 재임 중이던 1894년(고종31년, 甲午年)에 제주도 전역에 흉년이 들자, 자신의 녹봉을 털어 주민들을 구제하는 등, 신망이 두터운 관리였다. 그런데 대정현감에 재직하던 1901년(광무5년, 辛丑年5월 28일)에 제주의 천주교도와 연관된 이재수의 난(亂)이 일어났고, 그로 인하여 파직되고 손해배상책임까지 졌기 때문에 가세가 기울어졌다고 한다. 그러한 가정형편이었음에도 그는 그의 나이 9세가 되던 1925년에 향리의 대정소학교에 입학하여 공교육의 과정을 받기 시작하였고, 입학한지 4년만인 1929년에 졸업하였다(애경산업(주), 2004, p. 123).

그는 소학교의 교육과정을 통하여 새로운 세상을 보는 눈을 뜨게 되었고 새로운 문물에 대한 열망을 갖게 되었음은 물론, 새로운 지식에의 열정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1930년 도일(渡日)하기로 결심하였다. 일본 오사카(大阪)로 건너간 그는 수년전에 일본으로 건너와 자리 잡은 친척 집에 기거하면서 1931년부터 6년제 심상(尋常)소학교에 편입하여 학업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국권을 빼앗긴 가난한 식민지 소년에게 주어진 일본에서의 생활은 인고(忍苦)의 세월이었다.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는 굳은 의지와 향학에의 열정으로 그 시련을 이겨내고 소중한 인생경험들을 쌓아 나갔다(애경산업(주), 2004, p. 123).

이러한 이국(異國)에서의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굳은 의지로 주어진 환경을 이겨내며 소학교 과정을 마쳤다. 그리고 그는 투숙해있던 친척의 사업을 도와 드리면서 다시 향학에의 꿈을 실현하기에 이른다. 즉, 그것은 일본 오사카의 5년제 명성상업학교(明星商業學校)<sup>1)</sup>에의 진학이었다. 이역에서의 고학하는 입장이었으나, 그는 어렵게 얻은 상급학교에의 진학기회를 놓치지 않았고 근면과 성실한 마음으로 열심히 노력하였으며 유종의 미를 거두어 1938년에 드디어 명성상업학교를 졸업하는 영예를 얻었다.

1) 명성상업학교는 일본에 선교 차 들어와 있던 프랑스 선교사가 메이지유신(明治維新)의 물결에 편승하여 1890년에 설립한 실업학교로 수업연한은 5년제였다. 교육은 서양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그의 소년기는 부친의 실직으로 가난에 쪼들려야 했고 주변의 친구들로부터 소외되는 처지에서 성장하였지만, 굳건한 의지로 학업의 길을 걸었다. 그리고 그의 청년기는 일본 오사까(大阪)에서의 고학생으로서의 주경야독하는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자력으로 상업학교에 진학하였고 각고면려하는 심정으로 소중한 시기의 인생경험을 통하여 확고한 인생관과 세계관을 형성하는 기회로 삼았다. 이역만리에서의 그의 외로운 생활환경은 그로 하여금 훗날을 기약하는 교훈을 쌓아가게 하는 인생역정이었다. 그는 고학생으로 각고면려의 과정 속에서도 소년기에 품었던 꿈을 실현하기 위한 인고의 세월을 견뎌내며 훗날 사업을 열어가기 위한 소양을 다져가는 학창시절을 알차게 보냈던 것이다(애경산업(주), 2004, p. 123-124).

## 2. 제2기(1939-1945) 경영수업기

채몽인은 다니던 일본 오사까의 명성상업학교를 무사히 마치고 1938년에 졸업하였다. 그는 졸업과 동시에 학교장의 추천으로 일본인 회사인 마쓰시다(松下)전기산업(주)에 입사하여 사회인으로서의 첫출발을 걷게 되었다. 오사까(大阪)에서 회사생활을 하던 그는 마쓰시다(松下)전기산업(주)의 경성지점(京城支店)에 발령받아 생활근거지를 서울로 옮기게 되었고, 귀국하여 서울에서의 새로운 출발을 하였으며 새로운 기회를 만들게 된 것이다. 마쓰시다전기산업(주)의 경성지점에서 그는 2년 동안 근무하였고 그 동안 기업을 경영하는 실무경험을 착실히 쌓으면서 기업하는 자의 소양을 익혀나갔다.

민족의식이 강했던 그는 2년 동안 근무하던 마쓰시다(松下)전기산업(주)를 사직하고, 한국인이 경영하는 민족기업으로 전직하였다. 즉, 그는 민족 기업가인 박흥식에 의해 설립된 조선비행기회사의 자재과에 입사하여 근무하면서 실무경험을 쌓고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애경산업(주), 2004, p. 124-125).

이렇게 학업을 마친 후 3년 동안 그는 일본인 회사와 한국인 회사를 다니면서 나라 없는 민족의 설움이 무엇인지를 뼈저리게 체험하였고, 가난이 주는 고통과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을 터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국의 소중함을 스스로 깨달았다. 그는 개인의 영달보다는 민족의 이익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국익사상(國益思想)을 지니게 되었고 사업을 통한 보국(事業報國)의 신념으로 사업의 지를 불태우게 된다. 그런 가운데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1941년 무렵에 채몽인은 사업의지를 실천하기 위하여 조선비행기회사를 사임하고 자기 사업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그가 소년기부터 가슴 속에 간직하고 있던 꿈이요 포부였다. 어린 시절부터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심정에서 냉엄한 사업계에 투신하는 용기를 발휘하였다. 자기사업을 일으키려는 신념으로 그는 학창시절의 인연이 있는 일본 오오사까(大阪)를 왕래하면서 장사를 하였다. 그 과정을 통하여 상업자본을 차분히 축적해 나갔다. 이렇게 하여 채몽인은 태평양전쟁이 일어나던 1941년부터 종전되던 1945년까지 5년 동안 무역업에 종사하면서 경험을 쌓음과 동시에, 자본축적에 성공했으며 독자적인 기업을 설립하기 위한 꿈을 키워나갔다(애경산업(주), 2004, p. 123-125).

### 3. 제3기(1946-1953) : 상업자본 축적기

채몽인은 1945년에 조국이 광복되자, 서울 종로에서 대룡양행(大隆洋行)을 설립하여 중석과 우지(牛脂)의 수출입 무역업을 시작하였다. 1950년에는 옥방광업주식회사(玉房鑛業株式會社)를 설립하였다. 1951년 10월 한국전쟁의 와중에서도 그는 피난지인 부산에서 대룡양행의 상호를 대룡산업(주)로 법인화하였고, 옥방광업(주)의 주력품목인 중석이 수출호조를 이루어 자본을 축적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주었다고 한다. 부산에서의 경영활동을 통하여 힘을 얻은 채몽인은 정부가 환도함에 따라 1953년 9월 서울로 돌아와, 서울시 중구 소공동 111번지의 6호에 사옥을 마련하고 본격적으로 기업 활동을 전개하였다(애경산업(주), 2004, p. 123.)

이와 같이 채몽인은 자본축적이 이루어지자, 사업보국의 길을 구체적으로 모색해 나갔다. 그는 선공후사(先公後私)의 정신으로 국가와 사회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노력했던 국익사상의 소유자였다. 그는 천성이 온후하고 검소하며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성격의 소유자였으며, 항상 인재의 중요함을 강조하였고 육영의 뜻을 펼치기도 하였다. 그리고 그의 온후한 성격은 인간존중과 인재중시의 경영

사상을 영글게 하였다. 그리고 그의 검소함은 근검절약의 정신으로 승화되어 나타났으며, 불의(不義)를 미워하는 품성은 성실한 마음으로 정도경영을 지향하는 토양이 되었다. 종업원을 가족으로 보아 종업원의 복지에 애정과 깊은 관심을 기울였던 모습 속에서 그의 가족주의적 기업정신을 엿볼 수 있으며, 항상 베푸는 마음가짐으로 고객을 대하던 모습 속에서 이타주의(利他主義) 경영철학이 발견된다. 개인의 영달보다는 먼저 민족의 이익을 구하는 국익사상의 옅은 창업정신이 채몽인의 품성에서 우러나왔고, 그의 일생동안 기업경영에 작용 했던 것이다(애경산업(주), 2004, p. 125-127.).

#### 4. 제4기 (1954-1961) : 창업 및 사업기반구축기

##### 1) 상업자본의 산업자본화 : 애경유지공업(주)의 창업

무역활동으로 상업자본이 축적되었음을 확인한 채몽인은 이를 산업자본화하려는 사업구상을 하게 된다. 그는 면밀하고 신중한 검토를 한 끝에 유지(油脂)공업부분에의 진출을 결심하였다. 그것은 당시의 유지공업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는 양젓물이나 겨비누로 세탁하는 등, 서민들이 겪는 심한 불편을 덜어주려고 하는 창업자의 깊은 배려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고 한다(애경산업(주), 2004, p. 129.).

따라서 채몽인은 유지화학공업에 진출하려는 포부를 갖고, 당시 인천지역에 있던 비누 제조업체인 애경사(愛敬社)를 인수함과 동시에, 회사설립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하였다. 그는 발기인 10인과 함께 발기인대회를 열고 드디어 1954년 6월 9일 애경유지공업주식회사(愛敬油脂工業株式會社)를 설립하기 함으로써, 우리나라 유지화학공업계의 신기원(新紀元)을 이룩하였다(애경산업(주), 2004, p. 130; 장영신, 2000, pp. 27-28.). 이것이 오늘날 27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애경그룹의 효시이다. 창업 당시의 상황은 <표1>과 같다.

< 표 1 > 창업 당시 애경유지공업(주)의 상황

구 분	주 요 내 용
상호	애경유지공업주식회사(Aekyung Fats & Oils Processing Co. Ltd)
발기인	채몽인, 현종만, 채화필, 박언정, 나용순, 최봉덕, 이승우, 이항로, 박래잔, 정경화
대표이사	채몽인 (대표이사 사장)
자본금	500만원 (당시의 화폐표시는 5,000만원이었으나 1962년 1/10로 디노미네이션)
본사소재지	서울시 중구 소공동 111번지의 6호
공장소재지	인천시 송림동 2가 4번지
공장시설규모	대지 540평, 건물(연건평) 370평
생산품목	세탁비누

<자료 : 애경산업(주), 『애경 50년사』 (2004), p. 130 >

여기서 애경유지공업(주)의 창업에 즈음하여 주목할 점은 외국자본이나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축적된 순수한 민족자본과 자체의 기술력으로 국제규격에 적합한 비누제품을 생산 공급했다는 것이다. 창업년도인 1954년 1년 동안 세탁비누 23만 6,000개를 생산하여 순조로운 출발을 하였다. 순조로운 창업의 수순을 밟게 된 창업자 채몽인은 인천공장의 시설보수를 완료하고 최신설비를 갖춘 생산 공장을 건설함으로써, 소비재인 비누만을 생산하는 영세업체의 규모에서 벗어나 회사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경영환경을 조성해나갔다. 그 결과, 영등포(현재의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501번지)에 부지를 확보하고 공장을 건설하기에 이르렀다. 건설공사는 1956년 4월에 완공되었고, 새로운 시설을 갖춘 애경유지 영등포공장이 가동되기 시작하였다. 부문별 연간 생산능력은 지방산 7,200톤, 글리세린 1,800톤, 스테아린산 240톤, 및 올레인산 210톤이었다. 그리하여 영등포 공장은 국내의 전체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생산능력을 갖춘 한국 최초의 유지종합공장으로서, 준공 첫해인 1956년부터 본격적으로 생산 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애경산업(주), 2004, pp. 130-134).

이러한 초창기 영등포공장의 생산실적은 <표2>에서 보이는 바와 같다.

창업자는 수익성 보다는 소비자들에게 좋은 제품을 제공하려는 소비자 지향의 경영이념을 지닌 기업가였다. 애경유지공업(주)의 종업원들도 이러한 창업자의 경영방침을 받아 들여 품질향상은 물론, 고객을 위한 신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고 한다. 그러한 기업풍토 속에서 개발된 신제품이 1956년 1월에 출시된 「미향」 비누였다. 이것은 한국 최초의 국산기술로 개발해낸 화장(化粧)비누였다. 우리나라에서의 화장비누시대가 개막된 것이다. 인천공장에서 미향비누를 첫 생산한 이후, 1957년부터는 「눈」, 「Lutex」 군납비누, 세탁비누인 「백합」 등이 출품되었고, 당시 여러 경쟁회사의 비누제품과 외래품·밀수품이 범람하는 환경 속에서도 1958년에는 「미향」 비누 한 품목만도 한 달에 100만개가 판매되었다. 이렇듯 순조로운 환경여건을 이루어감에 따라 애경유지공업(주) 초창기의 성장기반은 안정적으로 확립될 수 있었다(애경산업(주), 2004, p. 134-135; 장영신, 2000, pp. 28-29.).

<표 2> 창업기 애경유지공업(주) 영등포 공장의 생산실적

(단위: 톤 M/T)

생산제품	용도	1955	1956	1957	1958	계
지방산	각종 비누·구리스·광택제	391	2,720	1,119	3,066	7,296
글리세린	1종 : 화약·알키드수지 2종 : 연초부동약화장품 특수잉크·셀로판선광제·유화제·방모제	4	223	457	665	1,349
올레인산		-	77	168	61	256
스테아린산	고무유연제·이형제·양초·크레용·광택제·금속비누화장품·정제유(공업용설탕)	-	58	110	163	331
계		395	3,078	1,804	3,955	9,232

<자료 : 애경산업(주), 『애경50년사』 (2004), p. 134 >



## 2) 사업기반의 구축

세탁비누 제조업을 1954년에 출범시킨 채몽인은 1956년 영등포 공장에 유지분해 가공시설을 준공하고 제품개발을 단행하였으며, 1957년 9월과 1960년 1월에는 자본금을 증자하는 등, 초창기부터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였다. 그는 1958년경부터 호황기에 불황을 대비한다는 의지를 표출하여, 이른바 프로젝트 리서치(project research)를 통한 새로운 사업구상을 탐색하였다. 더욱이 그는 사채나 은행융자 등을 싫어하는 기업가로서 분수에 맞는 업종을 찾아 자기자본의 범위 내에서 투자한다는 원칙의 소유자였다. 투자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대규모의 장치사업 보다는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맞는 사업을 모색했다(애경산업(주), 2004, p. 136.).

애경유지공업(주)은 1960년대로 접어들면서 력키화학과 평화유지 등, 경쟁업체의 출현으로 인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으며 안 되었다. 결국, 인천공장을 폐쇄하고 영등포 공장에 비누제조를 위한 최신설비를 건설하기에 이른다. 알키드레진(Alkid Resine)을 생산하는 합성수지의 생산시설을 설치하기로 결정하였던 것이다. 1961년 11월에는 앞으로 신설될 비누 및 합성수지의 생산시설에 대한 자료수집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자를 유럽과 일본에 파견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마침내 1962년 2월 영등포 공장에 자동연속 비누제조시설을 준공하는 개가를 올렸던 것이다.

프로젝트 리서치로 축적된 정보를 바탕으로 신규 사업을 전개한 애경유지공업(주)은 1960년대의 벽두부터 국내 최초로 「베코솔」(Beckosol)이라는 이름의 신제품을 출시하였다. 그러나 이 제품은 출시와 동시에, 시련을 맞았다. 국내도로업계의 최첨단 원료를 제공함으로써, 도로제품의 혁신적인 품질향상을 제공한다는 당초의 취지는 실현되었으나, 채산성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이는 국내 도로업계가 「베코솔」의 품질에 대한 높은 평가를 하면서도 원료비 증가에 따른 제품가격의 인상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애경유지공업(주)에서도 「베코솔」의 가격인하요구를 수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문제는 심각한 국면을 맞게 되었다. 결과는 재고량 증가로 인하여 조업 단축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실무진에서는 일단 제품가격을 인하해서 판매량을 조정할 다음 적당한 시기에 가격인상을 하도록 건의 했으나, 그 때마다 채몽인은 비누공장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므로 여유 있게 추진하자는 확고한 신념을 굽히지 않았다(애경산업(주), 2004, p. 139-140.).

창업자의 확고한 의지와 신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합성수지공장의 연이은 조업중단은 실무진들로 하여금 감내하기 어렵게 하였다. 창업자를 비롯한 경영진은 몇 가지 원칙<sup>2)</sup>을 세우고 대체 상품개발에 착수하였다. 그 결과, 기술제휴사(RCAG)의 폴리라이트(Polyleit)를 대체 품목으로 정

2) 「베코솔」 제품의 판매부진을 만회하기 위하여 대체 품목의 개발에 착수한 애경의 경영진은 신규제품 개발의 기본원칙을 제시하였다. 즉, 그것은 ①제휴사(RCAG)의 설비와 원천기술을 활용한다는 것, ②국내수요가 많은 목재용 도로부분에서 신제품을 개발한다는 것, 그리고 ③최소한 몇 년간 경쟁업체에서 개발하기 어려운 기술을 활용한다는 것 등의 세 가지 원칙을 일컫는다.

하고 시제품 생산에 성공하였다. 그리하여 1960년대 초부터 전국의 실수요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 요원을 파견하여 적극적인 판촉활동을 전개하였다. 판매량은 목표치인 5톤에서 출발하여 25톤, 80톤, 250톤 등,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초기의 「베코솔」 제품이 빛은 부진함을 만회할 수 있었다고 한다(애경산업(주), 2004, p. 140.).

「폴리라이트」라는 신제품은 무색투명한 목재용 도료로서 가구도장에 많이 사용 되었는데, 애경유지공업(주)은 이 제품의 대성공을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합성수지 부문의 조업률이 크게 진척되었고 새로운 제품개발에 진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같은 해에 「베코솔」의 활용방안을 모색하던 중, 온돌 장판용 「애경 바니스」를 출하해 인기 품목으로 자리 잡게 하였다. 애경유지공업(주)은 「폴리라이트」의 생산으로 합성수지 공장을 완전가동하게 됨에 따라, 1963년 2차 증설계획을 세워 추진 하였다. 한편, 그는 PVC(Poly Vinyl Chloride : 염화비닐)부문에 주목하고, 독자적으로 가소제<sup>3)</sup>의 일종인 DOP합성개발에 성공함으로써, 「알키드 레진」, 「폴리라이트」를 비롯한 3가지 모두 국내 최초의 신규제품 개발에 성공하였으며, 수입대체효과를 통한 국가경제의 발전에 크게 공헌하게 되었다(애경산업(주), 2004, p. 140-141.). 이렇게 하여 애경유지공업(주)은 그 사업기반이 확고하게 다져진 것이다.

애경유지공업(주)의 창업기에 있어서 매출액 추이를 보면, <표3>과 같다.

〈표 3〉 애경유지공업(주) 창업기의 매출액 추이 (단위 : 백만원)

년 도	매 출 액	당기순이익	매출액성장률(%)
1954	40	-7	-
1955	326	-18	608,7
1956	506	25	55,2
1957	510	12	0,8
1958	555	62	8,8
1959	610	105	9,9
1960	684	73	12,1
1961	773	92	13,0

<자료 : 애경산업(주), 『애경50년사』, (2004), 재무제표자료에 의거 작성>

3) 가소제(Plasticizer)라 함은 유기물질의 한 종류로서 열가소성 플라스틱인 염화비닐, 아세트산비닐에 첨가하여 열가소성을 증대시킴으로써, 고온에서 성형가공을 용이하게 하는데 온화성(Compatibility : 섞임성)이 필수적인 것이다. 이것은 가소성 이외에도 내열, 내한, 내연 및 전기적 성질 등을 향상시켜야 하는 것이다. 가소제의 종류는 DOP(디옥틸프탈레이트), DOA(디옥틸아디페이트), 및 TCP(트리크레실포스테이트)등이 있다. (애경산업, 전계서, p.141)

## 5. 제5기(1962-1970) : 기업성장기

### 1) 제품 다양화

창업자 채몽인은 애경유지공업(주)의 비누공장을 최신시설로 정비하여 1962년부터 가동시킴과 동시에, 유지분해시설과 비누 및 합성수지 제조시설 등의 증설을 완료·가동시킴으로써, 사업다각화의 초석을 다져놓았다. 사업규모가 커지고 제품의 다양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1967년에는 자본금 규모가 2억 5천만 원으로 증차되었다(애경산업(주), 2004, p. 1141-1428.).

1964년에는 국가의 품질보증 제도인 KS허가취득을 추진하였다. 그것은 회사의 대외공신력을 확보하고 기업이미지를 제고함과 동시에, 생산 공정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한 장기적인 포석이었다. 마침내 그 해 9월 7일 애경은 화장비누 「미향」 과 세탁비누 「애경」 이 KS표시 허가를 취득하여 품질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1960년대의 신제품은 「별꽃」, 「투명」, 「흑사탕」, 「레몬」, 「앵무」, 「오리브」, 「우유」, 그 외에 유색비누인 「로렌스」, 「브라보」 등, 화장비누만 해도 10여종에 이르렀다. 그리고 창업자는 소비자들이 백색비누를 선호한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우유비누를 개발하여 출시함으로써, 한국 비누산업의 판도를 바꿔놓았고, 애경유지공업(주)을 안정적인 성장의 길로 인도하는 계기를 만들어 내었다.

이와 같이 애경유지공업(주)이 개발한 새로운 비누제품을 통하여 제품다양화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품질에 바탕을 두어 소비자가 선호하는 제품을 개발하여 공급하려 했기 때문이다. 이무렵 합성수지부문의 생산실적을 보면, <표 4>와 같다.

<표 4> 애경유지공업(주) 성장기의 합성수지 생산실적

(단위 : kg)

품 목	1965년	1966년
①베코솔	-	29,463
②폴리라이트 8,000	293,331	378,821
③폴리라이트 900	-	2,595
④폴리라이트 8,001	-	4,660
⑤DOP	123,800	343,254
⑥DOA	-	1,980
⑦DBP	9,400	75,400
⑧DHP	-	144,600
⑨바니시	-	17,522
⑩락카	-	12,862
합 계	426,531	1,011,157

<자료 : 애경산업(주), 『애경 50년사』 (2004), p.141>

## 2) 신규사업 진출과 신제품 출시

애경유지공업(주)의 성장기에 들어와서도 창업자 채몽인은 지속적으로 신규 사업을 구상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겼다.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비누의 대체품으로 급성장한 합성세제<sup>4)</sup>에 주목하고 그 개발에 착수하는 과감성을 보여주었다. 합성세제의 생산시설에 대한 검토를 단행하고 미국 케미톤(Chemiton)사의 플랜트를 도입하기로 결정함과 동시에, 영등포 비누공장의 북쪽 임야를 구입하여 합성세제 공장건설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로 1966년 8월에 건평 약 156평의 공장이 준공되었다. 생산되기 시작한 합성세제품의 명칭은 「크린 옹」, 그리고 중성분말세제는 「씨니」로 결정되었고, 그 해 9월부터 출시하여 성장기의 기반구축에 기여하게 되었다(애경산업(주), 2004, p. 143-145.).

신제품의 출시초기에는 판매를 촉진하는 과정에서 고전했던 것도 사실이다. 당시에는 주부들이 손빨래 하던 습성이 일반화되어 있던 시대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를 탈피시키기 위한 광고 전략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러한 경영전략이 주효하여 「크린 옹」의 판매는 점차 증대되었으나, 「씨니」는 주부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였다.

애경유지공업(주)은 합성세제상품의 판매가 초반부터 난관에 봉착하자 부득이 조업단축을 하면서 판매촉진을 강구하는 한편, 새로운 대안을 강구하였다. 채몽인은 문제점을 타개하려고 주방세제 부문에서 액체로 된 제품개발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1966년 12월 우리나라 최초의 주방세제인 「트리오」(Trio)가 생산·판매되었다. 이 제품은 출하와 동시에 소비자들의 호평을 받아 비교적 짧은 시일 안에 시장 점유율 70-80%로 판매가 급성장하였다. 초기의 생산실적을 보면, 합성세제는 1967년의 340톤에서 1969년에는 1700톤으로 약 500%나 증가했으며, 「트리오」 제품은 1967년의 28톤에서 1970년 493톤으로 무려 1,760%나 급성장을 기록하여 주방세제부문의 확고한 위상정립이 이루어졌다. 특히 「트리오」 제품은 애경유지공업(주)의 성장에 총매작용을 하였고, 그것은 지금까지도 장수하는 품목으로 소비자들에게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애경산업(주), 2004, p. 76 & p. 145; 장영신, 2000, pp. 34-35.).

## 3) 기업성장과 경영다각화

사슬한 바와 같이 애경유지공업(주)은 관련된 각종 사업부문에서 신제품을 개발하여 종합화학 회사로서의 위상을 정립하였다. 투자했던 알키드 레진 사업이 판매부진에 처한 적도 있었으나, 그

4) 한국산업 표준규격(KS)에 의하면 합성세제(Synthetic Detergent)라 함은 비누 이외의 합성에 의해 만들어진 세제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비누, 즉 지방산의 아킬리염 이외의 세정력을 가진 계면활성제를 포함하는 혼합품을 지칭한다. 그리고 그 주요원료가 천연동식물유지인 비누와는 다르게 석유자원에서 얻은 원료를 주세정성분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대안으로 폴리라이트와 가소제를 개발하여 대성공을 거두었다.

채몽인은 1968년에 무스프탈산 사업진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알키드 레진으로 완제품인 페인트를 생산하는 도료공장을 병설하기로 하였다.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대한페인트, 건설화학 및 삼화페인트 등, 3대 도료업체가 경쟁 상태에 있었다. 이러한 국내사정을 간파한 채몽인은 알키드 레진의 생산기술을 바탕으로 이들 기존 업체를 능가하는 국제수준의 도료제품을 생산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애경산업(주), 2004, p. 146-147.).

〈표 5〉 애경유지공업(주)의 도료생산현황(1968-1970)

(단위 : kg)

제 품	1968	1969	1970
조합페인트	5,071	2,007	760
에나멜	9,066	2,041	12,852
폴리라이트	-	29,674	25,390
방청도료	4,286	250	703
바니시	22,061	21,569	23,607
베이킹 에나멜	-	5,513	2,133
특수도료	651	807	8,456
수성도료	-	-	6,450
성형용(PL)	311	2,000	6,000
합 계	41,446	63,861	86,351

〈자료 : 애경산업, 『애경 50년사』 (2004), p. 148〉

애경유지공업(주)은 1967년 8월 영등포 도료공장을 준공했다. 신제품의 생산초기에는 공업용 도료의 수요처에 판매력을 집중했다. 이는 판매 전략상 소량의 캔 포장 보다는 대량의 드럼포장으로 납품하는 영업방식을 선호했기 때문이다. 후발기업의 입장에서는 건축용 보다는 공업용 부문에서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전략이었다.

그 뿐만 아니라, 채몽인은 1969년경에 방식용(防蝕用)도료인 「타르 에나멜」 (Tar Enamel)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시장성을 검토한 다음, 일본의 닛테쓰 화학(日鐵化學)과 「타르 에나멜」의 생산 관련 기술제휴를 체결함으로써, 토목공사에 필요한 강판용 도료 부문의 사업진출에도 성공하였다. 1968년부터 1970년까지 도료제품 생산현황은 〈표 5〉와 같다.

채몽인은 1966년 무스프탈산 사업진출을 결심했다. 공장부지는 영등포공장의 북쪽 전답을 매입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막대한 투자자금 조달이 문제였다. 그는 외국의 민간차관을 도입하여 추진할 방침을 세웠다. 운영자금을 외부차입이나 은행융자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창업자의 기본원

칙에 반하는 것이었지만, 그는 거래처인 로켄저(Rokenger Trading Co., Ltd.)를 통해 서독의 푸르 마이스터(Furmeister)상사에 민간차관을 교섭하였다. 정부의 석유화학공장 건설승인과 차관도입을 성사시킨 채몽인은 1968년 PA공장을 준공하고 생산체제를 확립하였다. PA제품의 생산량은 첫째인 1968년에 746톤이었으나, 1969년에 3001톤, 그리고 1970년에는 2701톤으로 증가하여 기업 성장에 성공하였던 것이다(애경산업(주), 2004, p. 148-151.).

1960년대의 성장기에 있어서 매출액성장률은 <표6>과 같다.

〈표 6〉 애경유지공업(주) 성장기의 매출액 추이 (단위 : 백만원)

연 도	매 출 액	당기순이익	매출액성장률
1962	827	66	7.0
1963	1,002	108	21.2
1964	1,073	153	7.1
1965	1,117	250	4.1
1966	1,361	187	21.8
1967	1,868	113	37.3
1968	2,336	2	25.1
1969	3,211	133	37.5
1970	4,347	249	35.4

<자료 : 애경산업(주), 『애경50년사』(2004), 재무제표자료에 의거 작성>

애경유지공업(주)의 무스프탈산 생산 사업은 1970년에 제정된 석유화학공업육성법에 의한 제1호 등록업체로서 정부의 인증을 받음에 따라 우리나라 화학공업의 선구라는 평가를 받았다. 「석유화학공업의 발전이 곧 국가발전」이라는 국익사상을 지녔던 채몽인은 1970년 삼경화성주식회사(三敬化成株式會社 : 현재 애경유화의 전신)을 설립하고 울산에 무스프탈산 공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렇게 의욕적으로 활동하던 채몽인이 1970년 7월 12일 급환으로 타계하니 향년 54였다. 창업자의 시대가 마감되고 새로운 경영자의 시대로 이어지고 창업자 채몽인이 다져놓은 사업기반 위에서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되었다.

### Ⅲ. 채몽인의 창업이념과 기업가정신

#### 1. 창업이념과 기업가정신

채몽인은 한국경제의 어려웠던 시기에 애경유지공업(주)을 창업하여 새로운 부(富)와 기회를 창출해낸 기업가이다. 그는 미래를 지향하는 통찰력을 지니고 있었으며 도전의지의 용기 있는 기업가로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면서도 자애로운 온정주의적 인화(人和)의 정신으로 애경유지공업(주)의 경영이정표를 제시하였다. 따라서 근검인화·성실공정·창의실천·선공후사·애인경천을 근간으로 하는 그의 신념과 의지는 애경유지공업(주)을 이끌어 가는 창업정신의 근간이 되는 것이며 채몽인의 경영철학을 형성시킨 개념적 기초가 되는 것이다. 이것들은 그의 기업가정신의 원류를 이루어 경영이념으로 승화되는 작용을 하였음은 물론, 초창기의 애경문화를 구현시키는 촉진제 역할을 하였다.

이와 같이 채몽인의 창업이념은 그의 성장과정에서 터득한 경험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현장중심의 기업 활동을 통하여 이루어진 경영철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성실하고 공정한 마음으로 경영 현장에서 동분서주하였으며 온후한 가족주의적 인정미로 종업원을 다독거렸을 뿐만 아니라, 고객을 대할 때에도 겸손하고 부드러운 자세를 잃지 않았다고 한다. 그의 근면하고 검소한 생활습관은 절약하고 저축하는 표본적인 삶을 이끌게 하였고 어려웠던 어린 시절의 추억을 반추(反芻)하면서 탈빈치부(脫貧致富)의 집념을 일구어가게 하였다. 제주도 대정현의 현감(郡守)을 지냈던 그의 부친의 훈육으로 소년기에 익힌 근(勤)·검(儉)·성(誠)·정(正)·온(溫)·애(愛)·경(敬)·화(和)의 유교적 덕목은 그의 생활철학을 형성하는 근원을 이루었다. 이러한 근검 절약주의 정신과 신의 성실에 입각한 정도주의정신, 그리고 온정적인 인화의 정신은 우리나라 전통적인 가족주의문화의 줄기를 형성하는 요소가 되는 것이며, 유교주의윤리관에 기초하는 기업가정신의 원류(源流)에 해당하는 것이다(고승희, 2004, pp. 67-68.).

청운의 꿈을 가슴에 품고 일본으로 건너가 주경야독으로 학업을 계속해야 했던 가난한 소년 채몽인에게 있어서 고국산천은 그리움과 향수의 대상이었고, 눈물을 머금고 주먹을 쥐며 비장한 각오와 성공해야 한다는 마음을 굳게 다지게 해준 말없는 스승이기도 했다. 이역만리의 낯선 타국 땅에서 나라 없는 식민지 소년이 받아야 했던 설움은 견뎌내기 힘든 고통으로 어린 가슴을 응어리지게 하였고, 조국의 소중함을 터득하게 해주었다. 천신만고로 상업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인 회사에 취직했으나, 그의 강한 민족의식은 거기에 안주하도록 그를 허락하지 않았다. 결국 민족기업으로 옮기는 용기를 내게 하였다. 그는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할 일이 무엇인지를 터득하였고, 기업을 일으키기

위한 자본축적의 길로 들어섰다. 1941년의 일이다. 독자적인 사업을 갖기 위하여 그는 무역업에 투신하였고 성실하게 자본을 축적해 나갔다고 한다((애경산업(주), 2004, pp. 123-125, passim).

이러한 그의 성장과 인격형성과정을 통하여 채몽인은 애국애족의 정신적 소양을 갖추게 되었으며, 독자적인 사업을 일으켜 민족과 조국에 봉사하겠다는 신념을 갖게 된다. 그의 사업 보국주의사상은 이렇게 하여 다져진 것이라고 보아진다.

그는 목표에 도달하려는 성취의욕이 강한 사업가였으며 끊임없이 노력하고 연구하며 실천에 옮기는 창조주의적 개척정신의 소유자였다. 그가 항상 강조했던 「창의·실천」의 의지는 이러한 성품에서 우리나라 생활철학이라고 할 수 있다. 그가 언제 개종(改宗)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1959년 6월에 서울의 신당동성당에서 결혼식을 행한 것(장영신, 2000, p. 30.)으로 보아, 그는 그리스도교적 윤리관에 근거하는 서양사상을 지녔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것은 서양의 청교도적 개척정신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가 지닌 「창의·실천」의 창업정신도 가톨릭 신앙인으로서의 사상적 근원에서 비롯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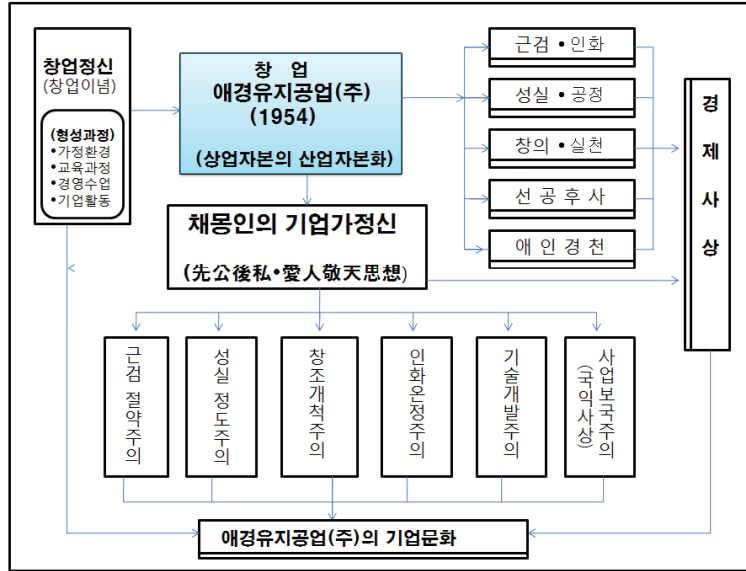
그는 시련에 봉착했을 때마다 그것을 기회로 삼아 신속하고 지혜롭게 제품 개발과 기술 개발을 이루어내어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내었다. 이렇듯 인내와 용기로 시련을 극복하고 강인함을 나타내는 자신감과 신념은 바로 채몽인의 「창의·실천」을 근간으로 하는 창조주의정신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한 도전의식은 미래를 창조하는 원동력이 되었고 기업성장의 열쇠가 되어주었다. 불의(不義)와 타협하지 않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하지 않았음은 물론, 「정실·공정」한 자세로 고객을 우선시하였다.

그는 신의를 지키는 기업인으로서 공(公)을 앞세우고 사(私)를 그 뒤에 놓았다. 기업의 존립기반이 안정된 사회와 국가에 있음을 일찍 간파한 채몽인은 「공선후사」의 공익사상으로 국가사회의 발전과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 만들기에 혼신의 힘을 기울였다. 이러한 국익사상을 기초로 하는 그의 기업 활동과 경영철학 속에서 찾아 볼 수 있는 근검절약주의 정신, 성실공정의 정도주의 정신, 창조주의 정신, 기술개발주의 정신, 그리고 인화(人和)에 바탕을 둔 온정주의 정신은 채몽인의 기업가정신을 형성하는 줄기가 되어있다. 이러한 내용의 기업가정신은 초창기의 애경유지공업(주)을 이끌어 온 경영이념으로 승화되어 나타났으며, 애인경천에 바탕을 둔 애경정신(愛敬精神)을 형성하는 초석이 되었다. 그것은 채몽인시대의 애경문화를 구현하는 개념적 요소가 되었으며, 기업성장의 기본 틀로서 모든 구성원들의 공유가치(value shared)로 작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승희, 2004, pp. 69).

따라서 채몽인의 창업이념과 그의 기업가정신을 통하여 승화된 경제사상, 그리고 애경유지공업(주) 초창기의 기업문화의 기반을 체계화하면, <그림2>와 같다.



• <그림 2> : 채몽인의 창업이념과 기업가정신



<자료 : 고승희(2004), pp. 70에 근거하여 약간 수정함. >

## 2. 채몽인시대의 공유가치

상술한 바와 같이 창업자 채몽인의 기업가정신은 애경정신의 반석을 이루고 있으며 애경문화의 형성배경이 되어 있다. 거기에는 창업자가 추구해온 「근검인화·성실공정·창의실천·선공후사·애인경천」라는 창업이념이 내포되어 있다. 이들 개념은 창업자의 경영방향을 나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사상의 기초를 형성하는 것이며, 애경 초창기의 구성원들이 공유했던 가치관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이 초창기 애경유지공업(주)의 구성원들이 추구해온 공유가치이다. 이러한 가치관의 기반 위에서 애경문화가 구현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 1) 「근검인화」

근검절약과 인화단결을 기본으로 하는 창업정신은 채몽인의 기업가정신을 형성하는 개념이며, 애경유지공업(주) 초창기의 기업 문화적 기반을 이루는 애경정신의 구성요소가 된다. 이것은 창업자 채몽인이 사업에 투신하면서 내세웠던 근검 절약주의와 온정주의정신을 요약한 기본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초창기의 사풍(社風)으로 정착되어 애경인의 기질로 승화되었음은 물론, 오늘의 애경그룹을 이룩하게 하는 기본정신으로 작용했던 것이다.

특히 근검절약과 인화단결의 정신은 창업자가 성장과정에서부터 몸에 배어있던 생활철학의 하나이기도 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창업자의 고향은 제주도이다. 예로부터 「풍재(風災)·수재(水災)·한재(旱災)」의 각박한 자연환경 속에서 살아왔던 제주도민들의 가난한 생활은 근검절약이 필수요건이었고 살아남기 위하여 인화단결이 필요했었다.<sup>5)</sup> 각박한 자연환경 속에서 부지런했던 그의 부모로부터 보고 익힌 이 정신은 그의 삶의 수단이었고 탈빈치부(脫貧致富)의 기본이 되는 정신적 지주였다고 보아진다.

채몽인이 사업의지를 불태우며 자본축적을 이루어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도 그의 근검절약 주의가 작용했던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부(富)의 원천을 근검절약과 인화단결에서 구하고 한평생을 근면, 검소, 인화의 생활철학으로 지내왔던 창업자는 그것을 바탕으로 사업을 일으켰고 사업과 연계된 기본정신으로 승화시켰던 것이다. 이렇듯 근검인화의 정신으로 최선을 다하는 자만이 자본을 축적하고 기업성장을 이룩할 수 있다고 믿었던 채몽인의 경영철학은 오늘의 애정을 이끌어 가는 밑거름이 되었고 애경문화를 창조하는 초석이 되었음을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승희, 2004, p. 72).

## 2) 「성실공정」

창업자 채몽인의 성품을 나타내는 표현으로서 「성실과 공정」이 있다. 역시 이것은 창업정신의 기초가 되는 것이며, 채몽인의 기업가정신을 이루는 둘째 요소가 된다. 그의 묘비에 새겨진 문맥과 홍상제막식 발기취지문을 통하여 창업자의 온후질박(溫厚質朴)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부정을 배제하는 불굴의 의지가 나타나 있음을 찾아 볼 수 있게 한다(애경산업(주), 2004, p. 125-127.).

이러한 성품도 그의 성장기에 부친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제주 대정현의 현감(郡守)이었던 그의 부친(樵隱 蔡龜錫)은 청렴한 관리로서 자신의 녹봉을 털어 흉년에 굶주린 백성을 구하는 선정(善政)을 베푸는 바 있고, 전답을 개간하기 위한 관개농법(灌溉農法)을 개발하는 등, 공익을 위한 바른 삶을 살았다고 한다(애경산업(주), 2004, p. 123.). 이러한 그의 부친의 성실하고 공정한 삶의 모습 속에서 그는 바르게 사는 자세를 터득했음을 인식하게 된다. 그리고 일본인 기업과 민족기업에서 근무하는 3년 동안에 성실하고 공정하게 일 처리하는 법을 배웠고 올바른 기업경영의 안목을 길렀다고 한다.

5) 제주도 사람이 이러한 삼재(三災 : 風災, 水災, 旱災)의 어려움으로부터 살아남는 길은 근면과 검소로 절약하고 가족끼리 또는 부락공동체가 인화단결함하여 춘궁기와 흉년을 이겨내야 하는 정신뿐이었다고 한다. 이것을 일컬어 제주도민들은 지금도 「즈냥정신」이라고 부르며 제주도민의 고된 삶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

따라서 채몽인은 사업에 투신하던 때부터 그의 품성에 자리 잡고 있던 성실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공정한 마음가짐이 하나의 힘으로 작용하여 미래를 가늠하게 하였다. 그는 성실한 삶, 그 자체가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임을 스스로 터득하였고 성실하고 공정해야만 고객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마음으로 기업경영에 임하였다. 이것이 바로 애경인(人)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공유가치로 승화되어 나타났던 것이다(고승희, 2004, pp. 72-73). .

### 3) 「창의실천」

채몽인은 도전의식과 명석한 판단력으로 민활한 실천의지를 발휘하여 애경유지공업(주)을 창업하고 성장시킨 개척자형의 기업가였다(애경산업(주), 2004, p. 127.). 이것은 창의적 기업가정신의 소유자임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창의적 실천의지를 지닌 기업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혁신적인 기업 활동은 신규 사업을 하거나 신제품의 개발과 새로운 생산방식을 도입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게 된다.

이러한 창의적 기업정신의 소유자였던 그는 제품다원화를 통하여 새로운 이익원천을 낳게 하였다. 이는 비누제조업에서 시작하여 합성수지공장을 건설함으로써, 도료사업에 진출하였고 알키드레진, 폴리라이트, 가소제 및 무스프탈산 등을 국내 최초로 생산해낸 종합화학공업의 효시를 이루는 계기가 되었다(고승희, 2004, p. 73). .

「창의실천」의 창업정신은 미래지향적인 도전의지를 표출한 것으로서, 경영활동의 새로운 영역을 추구하는 용기와 지혜를 일컫는다. 미래지향적인 실천의지를 통하여 새로운 제품개발과 사업확장을 추구하는 창조적 자세가 융화되어 창조주의적 개척정신이 형성되었고, 그것이 애경인(人)들의 공유가치로서 정착되기에 이르렀다. 항상 새롭고 신선함을 지향하는 창조주의적 애경인상(像)이 여기에 표출되어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이러한 창조주의정신은 기업경영의 새로움에 도전하는 개척주의문화를 잉태하게 하였으며, 창조적 사고와 실천의지를 일구어내는 기업풍토를 조성하게 해주었다.

### 4) 「선공후사」

창업자가 제시한 「선공후사」(先公後私)라 함은 공(公)과 사(私)를 구분하고 공을 우선시한다는 의미이다.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공(公共)의 이익 또는 전체의 이익을 강조하는 것이니 공익사상을 나타낸 개념이다. 공익사상은 개인의 이익보다는 전체의 이익을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생주의사상과도 일맥상통하는 개념이다. 즉, 사(私)보다는 공(公)을 앞세움으로써, 함께 사는 공생공영(共生共榮)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채몽인은 모든 분야에서 선공후사의 공익정신으로 국가와 민족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한 기업가였다. 그는 자기가 흘린 땀이 이 사회와 이 나라의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된다는 마음가짐으로 선공후사의 공익사상을 항상 강조하였다고 한다(애경산업(주), 2004, p. 126.). 이것은 그가 일제치하의 식민지시대에 태어나 나라 없는 설움을 체험했고, 이역만리 일본에서의 학창시절에 조국과 민족의 소중함을 깨달으면서 품게 된 생활철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국가가 없으면 기업도 존재할 수 없다」는 사업보국의 신념으로 공공의 이익을 중시하는 공익우선주의에 입각한 기업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는 개인보다 전체를 앞세우는 애국애족의 창업이념을 실천에 옮긴 자기희생적 기업가였음을 나타낸 대목이다. 그가 재정제주장학회(在京濟州獎學會)의 회장직을 맡아 고향 후배들로 하여금 장학금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헌신한 것은 그의 애국애족주의사상이 실천된 사례 중의 하나이다(고승희, 2004, p. 74).

창업자가 지닌 선공후사의 공익사상은 기업 활동을 전개함에 있어서 종업원 중심주의와 고객우선주의를 수반하는 개념으로 작용한다. 이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공생(共生)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다. 이러한 사상은 공생을 위한 종업원 복지, 인재교육,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기업문화의 창조에 이르기까지 폭 넓게 확대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 5) 「애인경천」

채몽인은 1954년에 기업을 창업하면서 상호를 「애경유지공업(주)」로 지었다. 여기에서의 「애경」(愛敬)은 조국재건과 산업부흥을 목표로 하는 「양심의 기업」이라는 심오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즉, 애경이라 함은 동양적 사상에서 유래된 경천애인(敬天愛人)의 철학사상에 기초하는 것이다. 이는 국민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좋은 제품을 만들겠다는 정신, 그리고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는 기업으로 성장발전 하겠다는 기업정신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개념이다(장영신, 2000, P. 73).

이러한 애인경천사상은 채몽인에 의해 창업이념으로 승화되어 나타났다. 국민을 위하고 국민에 의하여 성장 발전하는 국민기업으로 우뚝 서겠다는 의지가 애경유지공업(주)을 일으키는 기본정신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것은 모든 애경인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유가치로 정착되어 애경의 고유한 기업문화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고승희, 2004, p. 75).

개인이 이익보다는 먼저 민족의 이익을 구하는 부국경륜의 심오한 경영철학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다. 선공후사하고 애인애타(愛人愛他)하는 이타주의(利他主義)사상이 여기에서 비롯되었음을 인식하게 된다. 양심적으로 정성을 다하여 좋은 제품을 만들어 고객만족을 꾀하면서 벌어들인 이익도 장학지원으로, 사회에 환원했던 채몽인의 이타주의정신은 그의 부인 장영신 회장에게로 이어져 애경복지재단을 설립하는 밑거름이 되었다고 보아진다.

## V. 채몽인의 경제사상과 특색

### 1. 채몽인의 경제사상

#### 1) 애인경천사상에 근거하는 인적자본투자관

채몽인의 애인경천사상은 그가 창업한 회사의 이름에도 나타나 있다. 애경유지공업(주)의 「애경(愛敬)」이라는 표현이 그것이다. 그는 「애경」이라는 용어를 사명(社名)에 붙임으로써, 「사람을 아껴 사랑하고 하늘의 뜻을 받든다.」는 큰 뜻을 실천하려는 의지로 기업을 일으켰음을 시사(示唆)하고 있다. 이는 이윤만을 추구하는 천민자본가적인 기업인이 아니라, 기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경건한 마음으로 좋은 제품을 만들어 국민에게 봉사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을 일으키겠다는 채몽인의 굳건한 사업의지가 표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조국의 재건과 산업부흥을 목표로 하는 양심적인 기업의 의미를 담고 있는 애경유지공업(주)은 채몽인의 사업의지를 근간으로 하여 창업된 기업으로서 국민을 가까이 하고 받드는 마음가짐으로 좋은 제품을 만들어 제공한다는 경천군민(敬天勤民)의 사업보국사상을 실천하는 도장이었음을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애경(愛敬)」의 진정한 의미는 충(忠)·효(孝)·성(誠)·정(正)·화(和)의 동양적 철학사상에 기초하는 깊은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보게 된다. 정직하게 사업을 일으켜 국민경제의 발전에 헌신하고 제가(齊家)의 근본으로 삼음과 동시에, 인재를 길러 구성원간의 화합에 치중함으로써, 기업성장의 길을 도모하겠다는 것이 창업자 채몽인의 사상적 초석임을 인식하게 하는 대목이다.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인내천(人乃天)사상은 창업자가 소년시절 대정군수였던 그의 부친으로부터 받은 한문교육에 의하여 터득하게 된 인화사상의 근간이었다고 한다. 봉건시대의 지방 행정가였던 그의 부친은 그에게 유교주의에 입각한 지도자상을 심어주었고 인화를 통한 인재육성의 소중함을 일깨워주었다고 한다. 이렇듯 채몽인은 성장과정에서의 가정교육을 통하여 「만사를 도모함에는 인심을 얻는 것이 으뜸이고, 인재를 거느림에 있어서는 인화만 한 것이 없다.」는 취지의 훈육을 엄격하게 받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소년기에 받은 유교적 사상은 훗날 그가 사업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유감없이 발휘되어 창업이념의 초석이 되었다. 기업가정신을 형성하는 근간으로 작용하였다. 애경이라는 회사명이 여기서 비롯되었고, 국민을 위한 좋은 제품을 제공하는 양심의 기업을 일으켜 인화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기업으로 성장시키겠다는 경제사상이 그로 하여금 인적자본투자관을 확립하는 바탕이 되었음을 찾아볼 수 있게 한다(장영신, 2000, P. 73).

이러한 그의 인적자본투자관은 동양적 유교사상에서 비롯되었지만, 이것은 슐츠교수의 인간능력개발에 의한 인적투자론(T.W. Schultz, 1971, pp. 16-30)과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즉, 채몽인의 인적자본투자관은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와 같은 나라에서도 교육, 기술 및 현장경험 등을 통한 인적자본을 육성하는데 투자함으로써, 기업을 성장시키고 국민경제를 발전하게 할 수 있다는 경제사상이다. 인재의 교육과 기술개발은 정부만이 부담해야 할 사항이 아니라, 기업도 그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해한다는 것이다. 채몽인은 일본이 인재교육과 기술개발을 통하여 경제성장을 이룩한 점에 주목하고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경우도 정부와 기업 모두 산업인력의 확보를 위한 교육과 기술개발에 전력투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가 사내훈련을 강화하여 기술개발에 진력하여 기업성장을 도모했던 점이나 제주도장학회의 회장을 맡아 후진양성에 노력했던 것은 이러한 인적자본의 중요성을 표출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2) 탈빈치부의 국익사상

애경유지공업(주)의 창업자 채몽인은 기업을 일으켜 탈빈치부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부흥을 이룩 하자는 사업보국의 국익사상을 지니고 있었다. 이것은 그의 성장과정에서 터득한 불변의 의지요 신념이라고 한다. 소년기에 대정현의 군수였던 그의 부친으로부터 충효의 동양적 유교사상을 훈육 받아 민족혼이 몸에 배어있었고, 일본에서 고학하던 시절, 그리고 일본인회사에 근무하면서 나라 없는 설움을 뼈저리게 느꼈던 그는 가슴 속 깊이 조국의 소중함을 의식하고 있었고, 애국애족의 정신적 소양을 갖추게 되었다.

그러므로 그는 자기사업을 일으키기 훨씬 전부터 조국과 민족을 생각하는 신념을 지니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상적 기반이 채몽인으로 하여금 광복된 조국에서의 제조업을 일으키는 원동력으로 작용하여 사업보국의 길을 걷게 했던 것이다. 애경유지공업(주)의 창업은 이러한 그의 정신적 기반 위에서 이루어진 결실이었고 선공후사의 창업이념으로 승화되어 나타났음을 인식하게 한다.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민족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구하는 부국경륜의 경제사상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업을 일으키는 원동력으로 작용했고 보아진다.

선공후사하고 경천애인하는 이타주의사상은 채몽인이 지닌 기업가정신의 기본 축을 이룬다. 양심적으로 정성을 다해 양질의 생활용품을 생산·공급하는 국민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종업원복지와 장학지원을 통해 이익의 사회환원을 실천하려고 했던 그의 사업의 지는 이러한 그의 이타주의사상에서 영글어진 것이다.

탈빈치부의 국익우선사상을 바탕으로 하여 6·25전쟁의 참혹한 잣더미 위에서 기업을 일으켜 조국의 산업재건에 기여하려고 심혈을 기울였던 채몽인은 자수성가형 기업가로서의 표본이다.

이러한 그의 모습은 모든 구성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게 하였으며 국익우선의 사업보국주의적 사풍(社風)을 만들어가는 표본이 되었다(장영신 2000, P. 368.).

### 3) 창조적 기술혁신사상

경제학자 슈페터(J.A. Schumpeter)가 언급한 것처럼,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여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새로운 조직구조로 새로운 자원과 시장을 개척해가는 혁신(innovation)의 수행자를 일컬어 기업가라고 한다. 애경유지공업(주)의 창업자 채몽인은 이러한 부류에 속하는 기업가였다고 할 수 있다. 그의 창의적 기업 활동은 기술혁신을 통한 신제품의 개발과 새로운 생산방식의 도입은 물론, 신규 사업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나간 기업가의 모습이었다.

창의적 기업정신의 소유자였던 채몽인은 애경유지공업(주)로 하여금 제품다원화를 통하여 새로운 이익을 창출하였다. 이는 국민의 생활용품인 비누제조업에서 시작하여 새로운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확고한 사업기반을 구축하였고, 이어서 합성수지공장을 건설함으로써 도료사업에 진출하여 새로운 제품개발과 새로운 시장개척을 전개하고 기업성장을 이루었던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석유화학공업의 발전이 곧 국가발전」이라는 기업관을 가졌던 채몽인은 1970년 삼경화성주식회사(현 애경유화의 전신)를 설립하고 울산공업단지에 무스프탈산 공장을 건설한 것은 그의 기술입국론에 입각한 것이다. 이와 같이 1970년 삼경화성(주)의 설립을 통하여 신제품인 알키드레진, 플라라이트, 기소제 및 무스프탈산 등을 국내 최초로 생산하여 종합화학공업의 효시를 이룩한 것은 채몽인의 창의성 있는 기술혁신사상을 표출한 사례로 지적되는 부분이다.

채몽인은 지속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실천해나갔다. 비누의 대체품으로 급성장한 합성세제의 개발에 착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국 케미톤(Chemiton)사의 플랜트를 도입하는 과감성을 보이기도 하였다(애경산업(주), 2004, p. 143-145.).

신제품의 출시초기에는 고전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채몽인은 그에 대한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한 제품개발을 추진하였고, 1966년 12월 우리나라 최초의 주방세제인 「트리오」를 개발하는데 성공하여 시장 점유율 70-80%를 올린 적도 있다. 「트리오」제품은 애경유지공업(주)의 성장에 활성적 촉매작용을 하였던 것이다(애경산업(주), 2004, p. 76 & p. 145.). 또한 그는 방식용(防蝕用)도료인 「타르 에나멜」(Tar Enamel)에 대한 일본의 닛테쓰 화학(日鐵化學)과 기술 제휴를 체결함으로써, 강판용 도료의 사업진출에도 성공하여 기술혁신의 기수가 되었다.

### 4) 정도주의사상

채몽인은 도리에 어긋나지 않는 정도의 윤리적 경영을 고집하였고 합리주의에 입각한 기업의 기틀을 다져나간 경제사상의 소유자였다. 그의 창업이념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성실, 공정한 마음으

로 정도 경영을 수행함으로써, 경영합리화를 실천하고 기업성장의 길을 모색하여 탈빈치부의 사업 의지를 실천한 사상가였다.

애경그룹 청양공장의 정원에 세워져있는 채몽인의 묘비명에 의하면, 그의 성실 공정한 성품과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부정을 배제하는 불굴의 사업의지가 새겨져 있다. 그는 기업가로서의 성실한 삶, 그 자체가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는 과정임을 인식하였고 성실하고 공정한 경영자만이 기업 내의 종업원들과 기업 외의 고객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신념으로 기업 활동을 전개해나갔다고 한다. 이러한 그의 신념은 모든 구성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업문화로 조성되어 나타났던 것이다.

특히 그가 지닌 애인경천사상은 사업을 통한 보국의 길을 걷게 하였음은 물론, 합리적 경영활동을 전개하여 기업성장을 지향하는 초석이 되었다. 그가 수학했던 일본 오사까(大阪)의 명성상업학교는 프랑스 선교사가 설립한 학교로서 그에게 서양식 합리주의사상을 익히는 최적의 배움터였다고 한다. 그가 학생시절에 터득한 합리주의적 사고방식은 훗날 기업을 일으키고 성장시켜가는 과정에서 유감없이 발휘되었음을 보게 된다. 경영합리화는 생산성향상과 원가절감으로 경쟁력을 길러 기업의 미래를 가능하는 개념이라고 확신했던 것이다. 그의 합리적 경영방식은 기업 활동을 전개하는데 핵심적 가치요 행동철학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구성원들을 경영의 정도(正道)로 이끌어내고 효율적으로 직무를 수행케 하는 경영의 원칙임을 의미한다. 그는 이를 실천함으로써, 정도주의경영의 표본이 되었다.

그는 하늘의 이치를 깨달아 이를 받들었던 기업가로서 신의를 지켜 정도경영의 풍토를 만들어내어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얻고 기업성장의 길을 모색하였다. 공정하고 투명하며 부정과 타협하지 않는 기업인상(像)을 강조했던 채몽인의 정도주의사상은 애경유지공업(주)의 경영지표가 되었던 것이다(고승희, 2004, p. 77).

### 5) 공생공영주의사상 (사회적 책임의 기업관)

채몽인이 지닌 선공후사의 공익사상은 개인의 이익보다는 전체의 이익을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생공영주의사상과도 일맥상통하는 개념이다. 그의 애국애족의 공익사상은 기업 활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종업원 중심주의와 고객우선주의를 수반하는 개념으로 작용한다. 이는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공생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다.

기업가와 경영자, 그리고 종업원과 고객이 함께 살고 기업과 사회가 함께 번영할 수 있게 한다는 그의 사상은 결국 기업의 성장과 종업원의 복지, 그리고 인재육성을 위한 사내교육, 더 나아가서는 기업이윤의 사회 환원을 통한 장학지원사업과 복지사업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삼경화성(주)의 울산공장 내에 종업원 기숙사 부지를 마련한 것은 바로 그의 인화사상 속에 내포된 공생공



영의 의식구조가 실천된 사례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는 기업을 통하여 자기의 뜻을 세우고 그 뜻을 실천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에 공헌한다는 평범한 생각으로 기업을 일으켰다고 한다. 그의 부친이 지방 관리를 하다가 그만 둔 후 향리의 논밭을 개간하며 관개시설을 계획하고 공익에 이바지하려고 하던 모습을 떠올리면서 그는 기업을 하되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업, 즉,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공생공영의 사업을 하려고 했다. 여기서 채몽인이 애경유지공업(주)을 통하여 국민을 위하는 사회적 기업의 모습을 실현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며, 규모는 크지 않으나 공익에 입각한 장학지원과 종업원 복지제도를 확충함으로써, 이익의 사회 환원을 실천하려고 했다. 이러한 그를 일컬어 사회적 책임의 기업관을 지닌 기업가라고 할 수 있다.. 그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일찍 터득하고 이를 몸소 실현하려는 의지의 비전 있는 기업가였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 2. 채몽인 사상의 특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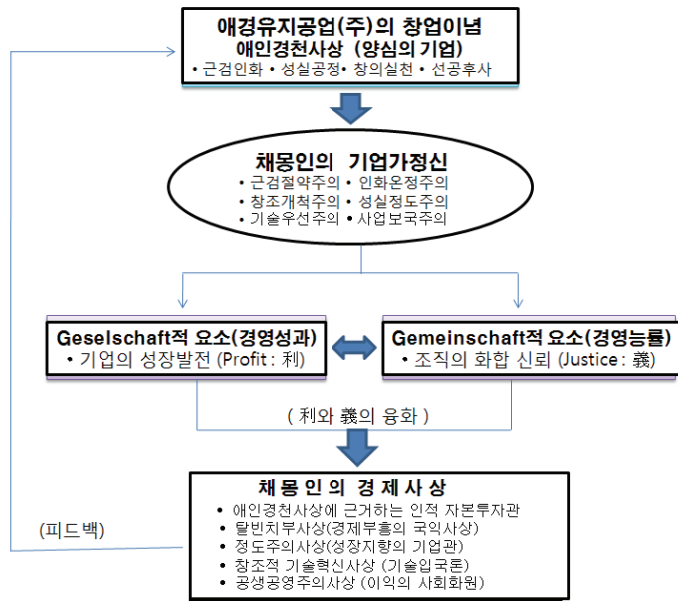
애경유지공업(주)의 초창기는 창업자 채몽인의 애인경천 사상을 기반으로 하는 창업이념으로 조성된 기업문화의 행태를 갖추고 있었다. 근검인화하고 성실공정하며 창의실천의 사업의지 속에서 선공후사하는 기업가치가 애경문화를 구현하는 것이었다. 여기에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질서유지와 사회공동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창업자의 사업보국주의정신이 나타나 있다. 즉, 애인경천 사상에 입각한 양심적인 기업으로서의 정도경영문화가 모든 구성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지표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근검인화의 가족주의적 기업풍토 속에서도 기술혁신으로 제품개발과 시장개척을 주도함으로써, 개척주의문화를 조성하였다. 선공후사하는 그의 올곧은 성품은 사업보국주의문화를 꽃피우게 했던 것이다.

이러한 초창기의 애경문화는 애경60년의 기업사를 가늠하는 이정표가 되었으며, 애인경천사상을 발원지로 하여 도도히 흐르면서 생활용품화학사업·환경부문의 물줄기를 이루어 케미토피아적 풍토를 조성하였다. 여기에 채몽인의 경제사상적 특색이 있음을 보게 된다.

애경유지공업(주)의 고객가치를 창조하는 케미토피아적 기업풍토는 채몽인의 경제사상을 기초로 하는 모든 애경인의 공유가치에 바탕을 둔 이익공동체(Gesellschaft)적 요소와 운명공동체(Gemeinschaft)적 요소가 조화를 이루어 증류된 것이다. 이것은 기업성장의 영양분인 경영성과(利:profit)와 모든 구성원들의 화합과 신뢰의 원천인 정도경영(義:justice)의 융화로부터 도출되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승희, 2004, pp. 112- 113.). 기업은 이익공동체로 출발한 것으로서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며 철저한 경영합리화와 효율화를 추구하게 되지만, 운명공동체적인 기업

관이 요구되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기업관은 상부상조를 통한 공생공영의 기업풍토를 만들어내고 모든 구성원들이 가족적인 분위기 속에서 서로 화합하고 협조한다는 특성을 지니게 된다. 여기에서도 채몽인 사상의 특색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림 3> 채몽인 사상의 특성



(자료: 애경산업(주), 『애경50년사』, 2004의 자료에 의거 필자 작성)

이러한 애경유지공업(주)의 기업풍토는 모든 구성원과 고객의 풍요로운 삶을 창조하기 위한 공생공영의 이타주의문화를 형성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식을 환기시켰고, 경영자와 종업원 간의 화합을 가져오게 하는 노사 화합의 조직문화를 탄생시켰다. 사회적으로 신뢰받는 투명한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정립시켰음은 물론, 기술혁신사상에 근거하는 개척자적인 도전주의정신을 영글게 하여 기업성장을 가져오게 했던 것은 채몽인 사상의 구현을 의미한다. 그리고 봉사과 희생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국익사상에 입각한 사업보국주의문화를 바탕으로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던 것도 역시 그의 사상적 특색으로 지적될 수 있는 부분이다.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경우, 인재육성을 위한 인적자본투자야말로 기업성장과 경제발전을 가져오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강조한 애인경천사상은 채몽인 사상을 특징짓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채몽인의 경제사상은 애경60년의 기업사를 기념하는 발원지의 역할을 하였고 도도히 흐르는 강물이요, 우뚝 솟아 있는 산맥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채몽인 사상을 통하여 애경 문화의 참모습을 발견하고 애경인상(像)의 표본이 응축되어 있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이(利)와 의(義)의 융화를 유도하는 채몽인 사상이 도출되는 과정을 도시화(圖示化)하면 <그림3>과 같다.

## VI. 에필로그

상술한 바와 같이 채몽인은 한국경제의 어려웠던 시기에 사업을 일으키고 성장의 기틀을 다져놓은 개척자적인 자수성가형 기업가였다. 그는 1954년 6월 9일 애인경천의 기치를 내걸고 비누제조 업체인 애경유지공업(주)을 창업하여 국민들에게 생활용품을 제공하는 한편, 1970년 삼경화성(주)을 창업함으로써, 화학공업 분야의 발전에 건인차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한 기업가 중의 하나였다.

그는 어려운 가정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주경야독의 교육과정을 거치면서 탈빈치부의 꿈을 간직하게 되었다. 성실하고 근검절약하며 인화와 창의적인 실천을 생활화함으로써,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과감성을 보이면서 자본축적의 기회를 만들어내었고 결국 사업의 주춧돌을 놓는데 성공하였던 것이다. 애경유지공업(주)은 이러한 그의 꿈과 땀의 어우러진 결정체요, 애인경천과 선공후사의 사업보국주의사상을 실천하는 도장이고, 기업가로 성장할 수 있는 온상이 되었던 것이다.

채몽인은 1917년 10월 5일에 제주도 대정읍에서 태어나 1970년 7월 12일에 급환으로 타계하기까지 54년의 길지 않은 생애였으나, 가난을 극복하고 기업을 일으켜 자수성가하는 성공적인 기업가의 알찬 삶을 살았다. 특히 1954년부터 1970년까지의 17년간은 그가 지닌 기업가정신을 마음껏 펼쳐볼 수 있었던 소중한 기간이었다. 이 시기에 그는 왕성한 기업활동을 전개하면서 애경유지공업(주) 모든 구성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가치관을 심어주고 기업성장의 분위기로 작용하게 되는 애경문화를 구현해냄으로써, 기업성장의 기틀을 확고히 다져놓을 수 있었다.

<포 5>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그의 생전에 설립된 기업은 자본을 축적하던 시기의 3개 기업, 즉, 1945년의 대룡양행을 효시로 하여 1950년의 옥방광업(주)과 1951년의 대룡산업(주)가 있으며, 축적된 상업자본의 산업자본화를 실천한 1954년의 애경유지공업(주)을 비롯하여 1970년의 삼경화성(주)이 있다. 특히 애경유지공업(주)은 채몽인이 심혈을 기울여 성장시킨 기업으로서 그의 창업이념을 바탕으로 하는 초창기의 주력 기업이었다.

이러한 초창기의 기업풍토는 애경60년사의 초석을 다지는 지표가 되었으며, 채몽인의 경제사상을

인태시키는 원천으로 작용하였다. 즉, 그의 경제사상은 ①인적자본투자관, ②탈빈 치부의 국익사상, ③정도주의사상(성장지향의 합리적 기업관), ④창조적 기술혁신사상, ⑤공생공영주의사상(기업의 사회적 책임관)의 5가지로 요약된다. 이는 모든 애경인의 공유가치에 바탕을 둔 이익 공동체적 요소와 운명공동체적 요소가 조화를 이루어 형성된 것이다. 즉, 이것은 기업성장의 영양분인 경영성과와 모든 구성원들의 화합과 신뢰의 원천인 정도경영의 융화로부터 도출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창업이념과 경제사상을 기초로 하여 사업의지를 펼치면서 산업발전에 기여하던** 채몽인이 1970년 7월 12일 타계하게 되자, 애경유자공업(주)은 기업주를 잃은 충격으로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게 된다. 실의에 빠져있던 모든 구성원들은 뜻을 함께 모아 창업자의 유지를 받들기로 결의하고 경영정상화를 모색하였다.

〈표 5〉 채몽인 시대의 기업성장과 경제사상

채몽인 시대의 기업성장과 경제사상				
(자본축적기) (1945-1953)	창업 및 기업성장기 (1954-1971)	창업이념 (공유가치)	애경문화 (1954-1970)	책임이사상 (경제사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룡양행설립 (1945)</li> <li>· 옥방광업(주)설립 (1950)</li> <li>· 대룡산업(주)설립 (1951)</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애경유자공업(주)창업 (1954)</li> <li>· 영등포공장준공 (1956)</li> <li>· 서독Rechold사와 기술협정(1962)</li> <li>· 영등포공장 합성수지시설(1962)</li> <li>· 영등포 공장 가소제 시설(1962)</li> <li>· 영등포합성세제공장준공(1966)</li> <li>· 영등포 공장 도로시설(1968)</li> <li>· 삼경화성(주)설립 (1970)</li> <li>· 창업자 영면 (197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애인경천사상)</li> <li>· 근면검소</li> <li>· 성실공정</li> <li>· 창의실천</li> <li>· 선공후사 (양심의 기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검인화의 가족주의문화</li> <li>· 성실공정의 정도주의 문화</li> <li>· 창의실천의 개혁주의문화</li> <li>· 선공후사의 사업 보국주의문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적자본투자관</li> <li>· 탈빈치부의 국익사상 (사업보국주의사상)</li> <li>· 창조적 기술혁신사상 (기술입국론)</li> <li>· 정도주의사상 (합리주의적 기업관)</li> <li>· 공생공영주의사상 (사회적 책임관)</li> </ul>

〈자료 : 애경산업(주)(2004), 『애경50년사』의 자료 분석에 의거 필자 작성〉

1972년에 제2창업의 가치를 내세운 채몽인의 부인 장영신의 사업의지로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애경그룹으로 성장하게 된다. 오늘날 애경그룹은 ①유통/부동산개발부문, ②생활/항공부문, ③화학부문, ④해외사업부문 등, 4대축으로 하는 27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기업집단으로서 60년의 연륜 속에 한국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면서 성장을 구가하고 있다. 특히 2005년에는 제주항공(주)을 설립하여 항공부문에 진출하였는데, 이는 애경그룹의 창업자인 채몽인이 제주출신 기업가임을 기리는 의미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채몽인에 의하여 창업되어 성장가도를 달려온 애경그룹은 지난 반세기의 기업사 속에서 다져진 경험과 지혜를 초석으로 하여 고객의 신뢰를 얻어내어 미래지향적이고 세계적인 선도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애경그룹의 모든 구성원들이 채몽인의 창업이념과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주인의식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성수(2002), 『성공한 창업자의 기업가 정신』, 서울, 삼영사.
- 고승희(2004), 「애경그룹의 기업문화」 (한국경영사학회, 『경영사학』 제19집 제2호.
- \_\_\_\_\_ 외5인(1999), 『아산 정주영 연구』, 서울, 수서원.
- \_\_\_\_\_ 외 5인(2005), 『애경그룹회장 장영신연구』, 한국경영사학회.
- 신유근(1996), 『한국의 경영』, 박영사.
- 전국경제인연합회(1993), 『기업문화백서』.
- 이학중(1997), 『한국기업의 문화적 특성과 새 기업문화 개발』, 서울, 박영사.
- 애경산업(주)(2004), 『애경50년사』.
- 애경그룹(2010), 『홈페이지(<http://www.akc.kr>)』.
- \_\_\_\_\_ (2010, 『[http://www.aekyung.co.kr/ak\\_08/main/sub.jsp?pcd=company](http://www.aekyung.co.kr/ak_08/main/sub.jsp?pcd=company)』 )
- 장영신(2000), 『밀알심는 마음으로』, 서울, 동아일보사.
- 삼일회계법인(1995), 『한국기업의 성공조건』, 서울, 매일경제신문사.
- Deal, T. D. and Allan A. Kennedy(1982), "*Corporate Culture : The Rites and Rituals of Corporate Life.*"
- Schultz, Theodore Williams(1971), "*Investment in Human Capital,*"
- The Korean Academy of Business Historians(2005), "*A Study on Young-Shin Chang, Chairman of Aekyung Group,*" (A Series of the Korean Academy of Business Historians), KABH.

**<abstract>**

**An Approach to the Life and Economic Thoughts of Mong-In Chae,  
An Enterpriser from Jeju Island.**

The study is to approach practically to the life and economic thoughts of Mong-In Chae, an CEO from Jeju island. He had founded Aekyung Oil and fat Industrial Co., Ltd., on June 9, 1954 in Seoul. And he had built an oil dissolving and processing factory system in 1965 at Yongdeungpo area. The founder, in 1964, began to actively pursue the KS Quality accreditation to secure the public trust and to improve the company image, and received permission to use the KS mark in its 'Mihyang' cosmetic soap and the 'Aekyung' washing soap as a certificate of quality. So, he was able to develop new products and succeed in product diversification according to his conviction.

Founder, Mong-In Chae continued to seek out new business opportunities. He recognized the potential of synthetic detergents, and began its exploitation. 'Trio' was developed in December 1966 as the synthetic detergents, with beginning of sale and increased its market share rapidly to the point that it accounted for 70-80% of the kitchen detergent market.

According to the founder's decision, the Yongdeungpo paint factory was completed in August 1967. The factory was started mass production. In 1969, founder acquired information on the benefits of tar enamel, a corrosive protection paint, and after a market survey, entered technical cooperation agreement with Nitetsu Chemical Co., on sharing the production technology for tar enamel, entered into production and sale. In 1966, founder decided to enter the Phtalic Anhydride field and began to preparations for the construction of factory. For the large cash flow needed to buy the land of factory, Mong-In Chae began negotiations to obtain capital from Furmeister of West Germany through Rockenger Trading Co., Ltd. So, he succeeded to complete the Phtalic Acid(PA) plant in 1968.

Through its PA plant, Aekyung Oil and fat Manufacturing Co., Ltd., can be said to be the pioneer of Korean petrochemical industry. The growth of the petrochemical industry is vital to the national economic growth. Also, Monf-In Chae had founded Samkyung Hwasung Inc., and focussed his efforts on constructing a PA plant in Ulsan. However, he passed away on July

12, 1970, at the age of 54, by sudden illness.

As above, Mong-In Chae began his business activities with small-scale trading, but expended into the level of large company through diligence and thrift, and succeeded in accumulating capital with hard-work, honesty, and creative initiative. He was a self-made entrepreneur who possessed decisiveness, creativity, and organizational skills and leadership, along with propulsive force and the optimistic and pioneering outlook that created his own future with diligence and courage. He was a manager with a strong willingness. Through his early education in Japan, he gained an intellectual approach to his management, and during his years as an employee of various firms he gathered experience and the qualifications to become an enterpriser. The founder who was a humble and unassuming person with great diligence and modesty, always shunned corruption, and did not compromise with injustice. He treated his employees as family and had great concern for the improvement of their welfare.

Mong-In Chae had contributed greatly to the genesis of the Korean chemicals industry based on the desire to benefit the nation. So that, it can be said that his business activities were consistent with the philosophy that is centered on love for the nation and for the people, which is the building of national wealth through business. His business activities based on empiricism and rationalism were creatively and forcefully realized to form the framework of Mong-In Chae's business ethic, and his entrepreneurial spirits, which could be summarized as "diligence and frugality, integrity and fairness, creativity and initiative, and priority to the public benefit" creating the atmosphere for the growth of the company. His ideology of "Love for Person, Reverence toward Heaven" crystallized into the Aekyung's spirit, and became the common value for all the executives and employees of Aekyung Oil and Fat Manufacturing Company.

The early corporate cultures in the period of Mong-In Chae is condensed into as follow :① Family-like culture united in hard-work and conservation, ②Diligent and honesty culture of integrity, ③Pioneering culture of creative, and ④Patriotic and altruistic culture of upholding the 'public good. Furthermore, the economic thoughts of Mong-In Chae formed in the process of his business activities is as follow : ①The thought of human resources investment based on loving person and reverencing heaven, ②the thought for national benefits through accumulating wealth and emerging from poverty, ③the creative thought for technical innovation, ④the leading thought to the right track and business rationalization, ⑤the thought

for coexistence and co-prosperity by realizing social responsibility. To realize the corporate culture of Aekyung that create the affluent future, all members of Aekyung must try to practice the founder's economic thoughts into the progressive and positive attitudes.

**key words :** *Mong-In Chae's conomic thoughts, Founder's entrepreneurial spirits, Creativity, Technical innovation, 'Love Person, Revere Heaven' Priority to public benefit, Aekyung's culture, Entrepreneurial spirits*